

曹偉 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의 官人像과 그 의미*

김 창 호 **

<目次>

I. 머리말	1. 聖君을 補佐하는 盛世의 官人
II. 官人像 形成의 背景	2. 自己檢束을 바탕으로 道義를 堅持하는 官人
III. 曹偉 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의 官人像	IV. 맺음말 - 官인상의 시대적 의미

<국문 초록>

이 글은 조위 시에 나타난 15세기 후반의 官人像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조선 전기 時代精神의 변화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조위의 官인상 형성의 배경에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자형이자 스승인 김종직으로, 그는 조위에게 유가적 근본이념의 탐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했다. 또 하나는 당숙인 조석문으로, 조위를 경화 사회에 훈구가문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그가 이른 나이에 경화문화적 체질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상대적인 성향의 두 사람을 통해 조위는 당대에 필요한 官인적 능력을 갖추어 가면서, 官인으로서의 지향 정립에 필요한 사고와 감각을 갖추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kch411@wonkwang.ac.kr

‘관인상’은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지향하는 이상적 지점이면서, 직접적으로는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규율하고 실천의 방향을 정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위의 관인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태평 성세로 자부하는 당대에서의 ‘聖君을 보좌하는 盛世의 官人’의 像이다. 이는 시대에 대한 자신감 또는 낙관적 사고의 반영으로, 봄별같은 성세의 혜택을 입으면서 그러한 성세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진사류적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自己檢束을 바탕으로 道義를 견지하는 관인’의 상이다. 신진사류와의 연대 속에서 학문적·정치적 신념의 실천에 대한 기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민생을 우선 시하고 時政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태도와 관계된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조위가 활동한 시기는 정치권력이나 학문권력의 면에서 훈구로부터 사림으로의 점차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김종직 진출 이후 조위, 金宏弼, 金駟孫 등으로 이어질 무렵에 사화가 일어나고, 극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중국적으로는 16세기 후반 사림의 승리로 귀결된다. 조위의 시에 나타나는 두 관인상은 훈구로부터 사림으로 정치·학문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하던 15세기 중·후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時代精神의 점차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주제어】 官人像, 時代精神의 변화, 盛世의 官人, 新進士類, 自己檢束, 時政批判

I. 머리말

이 글은 조위 시에 나타난 15세기 후반의 官人像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조선 전기 時代精神의 변화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조위가 태어난 15세기 중반은 개국 이래 누적되어온 여러 문제가 노정되던 시기이다. 제도문물의 점차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의 내분은 정치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특히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훈구 권귀 세력은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독점했을 뿐 아니라, 선조 이래 표방되어온 유교 국가의 이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¹⁾ 이는 유교적 근본정신에 충실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바로 김종직 이후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젊은 관료들, 즉 新進士類다.

15세기 중·후반의 권력 지형에 대해서는 그간 다각도의 설명이 있어왔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훈구 대 사림, 문학 논리에 입각한 사장 대 경술 등이 그것이다. 대립적 속성에 따른 대항 구도 설정의 방식은 타 시기에 대비되는 해당 시기만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이해를 선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장점의 이면에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실제 작품이나 해당 작가의 면면을 볼 때, 어느 한 곳에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²⁾

본고에서 다룰 매계 조위는 15세기 후반의 문인·관료로서 훈구/사림의 대립적 구도로는 그 특징을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운 인물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정신세계와 문학적 특성, 나아가 15세기 문학지형의 일면을 해명하고자 하였다.³⁾ 본고는 후속 작업으로, 동일 대상인 조위의 시에 나타나는 ‘官人像’을 검토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15세기 후반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관인상’이란 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인에 대한 ‘상(像)’이다.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지향하는 이상적 지점이면서, 직접적으로는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규율하고 실천 방향을 정립

1) 이종범, 「점필재 김종직의 내면세계와 초기사림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교양, 2011, p.105.
 2) 김창호, 「조위 시를 통해 본 15세기 후반 문학 지형의 일면」,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교양, 2011, p.289.
 3) 김창호, 앞의 논문.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논의의 전개에 있어 먼저 조위의 관인상 형성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 이어 작품에 나타나는 15세기 후반의 관인상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관인상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II. 조위의 官人像 형성의 배경

조위는 단종 2년(1454년) 慶尙道 金山君 鳳溪里(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인의동)에서 부친 曹繼門과 어머니 文化 柳氏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애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관인상’ 형성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조위의 학문적 성숙과 관계 진출 및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은 金宗直과 曹錫文이다.⁴⁾

김종직과 조위는 자형, 처남 사이이다. 김종직은 조위가 태어나기 3년 전인 1451년에 조위의 누님과 혼인을 했으며, 이른 시기부터 조위의 학문 기반을 닦아준 스승이기도 하다. 「매계연보」에 따르면 조위는 10세인 1463년 무렵부터 김종직에게 나아가 수학했으며, 19세에는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을 찾아가 『禮記』를 배우고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27세이던 1480년에는 曝曬官으로 星州에 가는 길에, 모친상을 당해 밀양에 있던 김종직을 만난다. 1492년 김종직이 병환으로 늙자 성종은 내의인 신보종과 동부승지인 조위를 통해 약을 보내기도 한다. 1492년 7월 김종직이 세상을 뜨는데, 이듬해 호조판서에 오른 조위는 성종의 명에 따라 김종직의 詩文을 찬집한다.

스승으로서의 김종직은 학문 내용 전수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한 예로 김종직이 조위, 유희인, 양희지 등 신진사류에게 보낸 시편을 보면,

4) 이하 생애적 사실에 관한 내용은 이동재, 『매계 조위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p.28~45.의 내용과 김창호, 앞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그대 無邪頌을 읽고 또 읽으며, 달과 이슬 바람과 꽃은 안중에 두지 말게나.”⁵⁾, “후세에 다시 춘추의 필법이 있으니, 朱子께서 진실로 지공무사함을 보이셨네.”⁶⁾라고 함으로써, 당시의 문학 阿諛 풍조를 비판하는 한편 지공무사한 직필을 본보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소의 지론대로 經術을 강조하면서, 당대의 젊은 관리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조위는 이른 시기의 제자로서 학문 방향의 정립과 신진사류로서의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과 다른 방면에서 조위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조석문이다. 조석문은 조위의 당숙이며, 조위의 부친인 조계문의 사촌 형이다. 부친 조계문은 三軍鎮撫를 거쳐 典農主簿, 사헌감찰, 현풍·울진 현감을 지내는 등 관직에 몸을 담았지만 顯達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조석문(1413~1477)은 세종 16년 講聖文科에 급제한 이래, 세조 즉위에 공헌하여 좌익공신 3등에 오르고 昌寧君에 봉해지는 등 관료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었다. 李施愛의 난 때에는 병마부총사로 공을 세워 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이어 영의정에 올랐고, 성종 조에 들어서도 좌리공신 1등에 오르고 부원군에 봉해지는 등 한 시대의 영화를 누린 인물이다. 조위가 11세 되던 해, 부친 조계문은 조위를 데리고 한양으로 와 조석문에게 보이고는 자질을 시험하도록 한다. 이 때 조석문은 그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는 직접 『小學』을 가르치며 家塾에 머물게 한다. 이 무렵 조위는 경전의 의리를 講問하고 학문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조석문은 학문 방면에서도 도움을 주었지만, 조위가 京華 社會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472년 19세의 조위가 司馬覆試 兩場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합격의 榜이 조석문의 집에

5) 김종직, 「呈藏義寺讀書諸公」, 『佔畢齋集』 권12, p.299. “憑君三復無邪頌, 月露風花眼底空.”

6) 김종직, 앞의 시, “後來更有春秋筆, 雲谷誠能揭至公.”

7) 김창호, 앞의 책, pp.296~297. 참조.

붙었다. 1474년 조위는 조석문에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제수된다. 이 때 성종은 내관을 보내, 함께 급제한 훈구대신 申叔舟의 아들 申澗, 韓明澮의 조카 韓堰 등과 함께 조위에게 술을 내려 축하한다. 훈구 관료 가문의 범위 내에서 그를 인식하던 경화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석문이 죽자 그는 조석문의 행장을 撰하였으며 李承召에게 신도비명을 얻어 비석을 세운다. 이후 官界 활동에서 그는 훈구관료들에게 문장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杜詩諺解』 편찬 등 문화 사업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조석문의 후원 아래 경화사회에서 적응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이상을 볼 때, 조위의 관인상 형성의 배경에는 두 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자형이자 스승인 김종직으로, 그는 조위에게 유가적 근본이념의 탐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기대했다. 또 하나는 당숙인 조석문으로, 조위를 경화 사회에 훈구가문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그가 이른 나이에 경화문화적 체질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상대적인 성향의 두 사람을 통해 조위는 당대에 필요한 관인적 능력을 갖추어 가면서, 관인으로서의 지향 정립에 필요한 사고와 감각을 갖추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Ⅲ. 조위 시에 나타난 15세기 후반의 관인상

1. 聖君을 보좌하는 盛世의 官人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변과 비정상적 과정을 통한 세조의 즉위는 유교국가적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불가피한 현실 논리로 수궁하면서 적극 참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당성이 결여

된 일련의 사태에 죽음으로 저항하거나 체제 밖으로의 일탈을 택한 이들이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기 견해를 가진 대다수 식자층의 혼란은,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조 정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후 성종 조에 이르면서 정국은 차츰 평온을 찾아 갔다. 정변을 목도한 세대가 점차 퇴장하고 젊은 관리들이 정국 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자, 조정은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국가적 안정과 더불어 통치 체제와 문화 전범이 수립되어 가면서 『經國大典』을 비롯하여 『國朝五禮儀』,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樂志』, 『東文選』,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 등의 문헌이 편찬되고, 『四書五經大全』과 『小學』, 『家禮』 등 유가경서를 비롯한 수많은 서적이 간행 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⁸⁾

<寄宋可中>

二氣無停轍 陽和遞五寒
不須鄒子律 春意滿人間

<송가중에게>

음양의 변화는 중단됨이 없어
따스함과 차가움이 갈마드네.
鄒衍의 피리 가락 기다릴 것도 없이
인간 세상엔 봄기운이 가득하여라.

이 시는 조위가 宋軾(1454~1520)에게 준 시이다. 조위와 송질은 다 같이 世祖가 왕위에 오르던 1455년 무렵에 태어났다. 정국의 안정기이자 문화적 상승기에 성장하면서 관계에 진출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따뜻한 봄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8) 정경주, 「조선조 예악문명과 점필재 김종직의 위상」,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교양, 2011, p.71.

전제가 있다. 먼저 봄의 도래 이전에 따뜻함과 차가움의 교체라는 자연스런 계절 변화가 있고, 그 이전에 음양 변화라는 자연 질서의 순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피리를 불어 따스한 봄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3구의 ‘추연’은 말구의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인이 생각하기에 ‘인간 세상에 가득한 봄기운’은 바로 순조로운 자연 질서의 결과로 온 것이다. 그러기에 시인의 語氣는 단지 새로운 계절에 대한 반가움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대지에 遍滿한 봄기운에서 시인은 밝고 희망찬 그 무언가를 느끼는 듯하다.

<奉和洪兼善貴達韻>

大專能播物	靈蔡用稽疑
德業今如此	端宜佐聖時

<홍귀달의 시에 삼가 화운하다.>

하늘은 능히 만물을 화육하고
 신령한 거북이는 점치는 데 쓰이네.
 德業이 이제 이와 같으시니
 참으로 태평성대를 돕기에 마땅하다네.

이 작품은 조위가 홍귀달(1438~1504)의 시에 화운한 것이다. 홍귀달은 경상도 함창 출신으로 1460년(세조7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래 홍문관 전한을 맡았으며, 『세조실록』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조위는 시의 전반부를 통해 태평성세와 ‘靈蔡’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신의 시대는 천지가 만물을 고루 화육하는, 바뀔 말하면 앞 작품에서 ‘봄빛이 가득한’ 이미지로 제시되었던 그러한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영채, 즉 신령스런 거북은 국가대사에 관한 점을 치는 데 쓰이고 있다. 영채는 곧 국가원로를 가리킨다. 태평성세에서의 영채의 역할은 후반부를 통해 대상인 홍귀달에게로 연결되면서, 원로로서의 덕업이 聖明한 때를 돕기에 알맞다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시는 세조 이래 성종 조까지 조정에 몸담아 온 선배 관료 홍귀달의 덕업에 대한 칭송이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고루 화육하는 시대에 원로의 지혜를 기대하는 成宗 朝 조정의 안정과 여유, 그리고 성세의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이면에 놓여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성세의 넉넉함은 관인 생활 중에 창작된 작품에서 보다 생생하게 나타난다.

<郡齋舊無花卉, 手種梅四條, 一年皆着花, 賦詩詠之.>

坐對軒窓喚作兄	盡輸春色到山城
花先百種寧論品	氣壓群芳合擅聲
但得瑤琴思醉月	非關金鼎要調羹
東君并借栽培力	開盡幽香滿院生.

<군재에 본래 꽃나무가 없었는데 손수 매화 네 가지를 심었더니 1년 만에 모두 꽃이 피었기에 시를 지어 읊다.>

동헌 창 앞에 앉아 불러 형으로 삼으니
 봄빛을 모두 가지고 산성에까지 왔구나.
 모든 꽃에 앞서니 품평할 거나 있나
 기세가 여러 꽃들 누르니 최고라는 명성이 맞네.
 다만 거문고로 달밤에 취할 수 있으니
 金鼎에 調味하는 것만 관계되는 것 아니네.
 동군이 길러주는 힘까지 빌려주니
 꽃 피어나 그윽한 향기 온 군재에 가득하네.

이 작품은 조위가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에 쓴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郡齋에 매화 네 가지를 심었는데 1년 만에 모두 꽃이 핀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봄철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들이 많지만, 이 작품은 山城에 다다른 봄빛이 매화에 응결된 것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詩想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시인은 매화에 가져간 시선을 계기로 거문고의 음악소리와 취기어린 달밤

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조정에서 국가대사를 맡아 처리하는 宰相의 일과는 다른 범주의 일임을 떠올린다. 마지막 부분은 처음 부분과 호응하고 있는데, 시인은 매화에 어린 봄이 곧 군재에 가득한 봄이자 세상에 편만한 봄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에서 매화는 시름을 달래주거나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를 상쇄하는 매개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지방관으로서의 여유로운 마음을 한껏 펼치게 하고, 운치를 십분 누리게 하는 이미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시인의 마음속에 자리한 여유로움에 상응하는 것이면서 자기 시대에 대한 樂觀的 思考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작품마다 ‘따스한 봄빛’, ‘만물의 고른 화육’, ‘순조로운 자연 질서’로 나타나고 있다. 시인의 여유와 자부심은 이 무렵 조정 내에서의 역할과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 안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28세 되던 해에 그는 『杜詩諺解』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어 성종의 명에 따라 「杜詩諺解序」를 찬진하기도 한다. 31세에는 乞郡하여 함양군수에 임명되는데, 이때 韓明澮는 극력 반대하며 중국 사신과 수창할 만한 人才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조위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시대의 안정을 구가하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그러한 안정을 지속해야 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했다.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은 여러 작품에 나타나지만 특히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쓴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花園>

何物螟蛉忝紫宸	等閑來此樂遊頻
半生淫酗寧知命	抵死昏狂肯畏民
怪石如山空磊砢	奇花作陣鬪妖新
自從南岳兵塵暗	寥落行宮不復春

<화원>

어떤 螟蛉이 대궐에 들어와
 한가롭게 여기 樂遊苑에 자주 왔나?
 반생을 음탕하게 놀았으니 어찌 천명을 알았으리오.
 죽을 때까지 발광을 부렸으니 어찌 백성을 두려워했으랴.
 怪石은 산처럼 헛되이 쌓여있고
 奇花는 무리를 이루어 오염함을 다투네.
 南岳이 병란에 어둑해진 뒤로부터
 쓸쓸한 行宮에는 다시 봄도 아니 오네.

1476년 23세의 조위는 성종의 知遇를 입어 蔡壽(1449~1515), 權健(1458~1501), 許琛(1444~1505), 兪好仁(1445~1494), 楊熙止(1439~1504) 등과 藏義寺에서 賜暇讀書를 한다. 이듬해에는 성종의 허락 아래 松都를 유람하는데, 이 시는 이 때에 쓴 것으로 麗朝의 패망과 관련된 일화를 다루고 있다.

첫구에 나오는 ‘螟蛉’은 이화명충으로 식물의 줄기 속을 파먹는 해충이다. 이 작품에서는 고려의 禍王(1365~1389)을 가리킨다. 그는 공민왕과 신돈의 시녀인 般若 사이에서 태어났다. 10세 때에 李仁任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후, 처음에는 經筵을 열어 학문을 닦기에 힘썼고, 명덕태후의 훈계를 받아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명덕태후가 죽은 다음 사냥음주가무엽색 등 방탕에 빠져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다. 제목인 ‘花園’은 바로 우왕이 음주가무와 엽색을 일삼던 장소였다.⁹⁾

이 작품에서 조위는 매우 비판적이다. 우왕을 국가를 좀먹는 벌레에 비유하는가 하면, ‘淫酗’, ‘昏狂’ 등의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괴석’, ‘기화’에 대해서는 산처럼 쌓여있다거나 무리를 이루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치와 일락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왕이 비판받는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할 줄

9) 이동제, 『매계집』, 평사리, 2009, p.155.

몰랐으며, 음탕한 생활 속에 天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젊은 관리 조위가 역사 사실에 대해 가지는 판단의 입각점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조위의 생각으로는, 임금이란 백성을 두려워하고 천명을 알아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尾聯의 내용과 같이 패망과 영락의 역사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현장은 盛世를 지속하고 聖君을 보좌해야 할 신진 관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 낼만한 곳이다. 송도 유람은 신진 관리들이 治道 補益을 위한 자양을 갖추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賜暇讀書라는 학문 연마와 유대 강화의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錄重遊藏義寺詩, 寄許右相獻之[琛]. 前韻>

匡山讀書處	重到意悠悠
花氣薰金地	茶煙颺石臺
魚跳戲碧澗	鳥下印蒼苔
彷彿三生夢	夷猶晚未回

<장의사에 다시 노닐며 지은 시를 기록하여 우의정 허침에게 주다. 앞의 운>

匡山の 글 읽던 곳
다시 와보니 감회가 끝이 없네.
꽃향기는 金地에 배어있고
차 연기는 石臺에 날리네.
물고기는 솟구치며 푸른 시내에서 노닐고
새는 내려와 푸른 이끼에 발자국을 찍네.
마치 三生の 꿈을 꾸는 듯하여
한가로이 노닐며 늦도록 돌아가지 못하네.

이 작품은 사가독서 이후 15년이 지난 1492년에 채수, 권건, 허침, 유호인, 양희지 등 당시의 벗들과 함께 사가독서의 장소였던 藏義寺를 다시 찾았을 때에 쓴 것이다.¹⁰⁾ 조위를 비롯한 신진사류는 사가독서의 기

간 중에 서로를 격려하며 국가의 동량이 될 것을 다짐하곤 했다. 함께 사가독서를 했던 양희지의 말을 빌면, 이들은 “서로 今古의 일에 격양하고 風雅의 글을 선양하며, 밤낮으로 왕실에 한 마음을 두고 각기 名節을 갈고닦아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하기로 했던 사이”¹¹⁾이다. 그러한 이들이 송도유람을 통해 무엇보다 世道の 興廢와 人物의 盛衰, 그리고 歌謠의 美惡에 대해 경계로 삼을 만한 것을 채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¹²⁾

젊은 관리로서 임금을 보좌하며 至治를 꿈꿨던 시절을 회고하는 1, 2 구,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며 삼생의 꿈이라 표현하는 7, 8구의 배치로부터, 젊은 관리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自負가 교차하는 조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얼마 후 연산조에 이르면서 조위를 비롯한 신진사류는 더 이상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성종 조의 젊은 관리로서 치군택민하려 했던 열정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해야 했다.

2. 自己檢束을 바탕으로 道義를 견지하는 官人

앞장에서는 성군을 보좌하는 성세의 관인으로서의 관인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조위 시에 나타나는 新進士類의 특성과 관련된 관인상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성종조 신진사류는 대체로 성종조 이후에 生進試를 거쳐 과거에 진출하거나 또는 예비관료인 布衣 儒生으로서 현실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당대에 새로운 학풍과 참신한 문학을 제창하였던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¹³⁾ 김종직을 비롯한 신진사류에 대해 16세기 중반 퇴계의 시대와 비교하여, 사상적으로 불철저하고 이론적으로 심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10) 김창호, 앞의 논문, p.293.

11) 양희지, 『大峯先生文集』 권2, 「祭兪克己文」, p.28.

12) 김창호, 앞의 논문, p.294.

13) 정경주,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법인문화사, 1993. p.10.

있지만, 정치사상 운동의 환경이 상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다.

<觀書自警>

悔却當年枉費心 心源先正是良箴
非無萌蘖如山木 祇恐牛羊日日侵

<글을 읽고 스스로 경계하다.>

지난날 마음 헛되이 써버린 일 후회하노니
마음의 근원 먼저 바르게 함이 곧 좋은 교훈이라네.
우산의 나무처럼 싹 나고 움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와 양이 날마다 침해함을 두려워하네.

이 작품에서 조위는 淸淨한 마음의 본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전반부는 읽은 책의 어느 부분을 계기로 착상을 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 부분이다. 시인은 옳지 못한 곳에 마음 썼던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면서, 마음의 근원을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의 상태였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과오를 범하거나 방만함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은 3, 4구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산의 나무가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소와 양이 날마다 와서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언제든지 汚染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잠시라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緊張 속에서만이 청정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근원에 대한 탐구로 내면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성격의 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自警>

道在須臾日用間 求而卽至是希顏
苟能從事於精一 天理分明也復還

<스스로 경계하다>

道란 잠깐 사이 일상 생활에도 존재하여
원하면 곧 이르니 이것이 곧 顏淵을 양모함이라네.
진실로 능히 精一에 종사한다면
하늘의 이치는 분명코 다시 회복되리라.

이 시에서 조위는 학문과 인생의 목표라 할 道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음을 강조한다. 孔子에게 거듭 칭찬을 들었던 수제자 顏淵의 단계도, 다름 아닌 생활 속의 부단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精一’ 공부로 요약된다. ‘정일’은 『書經』 「大禹謨」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오로지 정밀히 하고 오로지 하나로 하여 진실되게 그 中을 잡으라”¹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순일하게 도덕수양에 정진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天理의 회복도 이 가운데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를 부단히 실천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는 “매번 古人을 보고 공허히 탄식하니, 학문이 끝내 황량함에 도리어 한숨짓네.”¹⁵⁾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점검의 태도와 상응하는 것이다.

김종직 이후 신진사류의 학문은 성리학에 충실하되 패기당당한 실천적 성격을 띠었다. 그들은 『小學』과 『家禮』의 강조에서 볼 수 있듯, 성리학적 윤리의 실천 운동을 펴나갔으며 이는 다음 세대 성리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들은 대개 結社 또는 인간적 교분을 통해 학문적 실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신진사류가 생활터전을 향촌에 두고 있었으므로 지방행정과 민생의 실상에 대하여

14)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15) 조위, 『매계집』, 「延豐道中, 記所見」. “每向古人空歎息, 還嗟學業竟荒哉,

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했다.¹⁶⁾ 조위의 시에는 이들과의 강한 연대 속에서 학문적·정치적 신념의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康子韞登第詩卷, 次伯珍韻. 二首>

泥蟠一夕忽通津	三級龍門志願伸
攻苦幾曾隨計吏	揚名今已慰慈親
春風綺陌鳴珂遠	曉日金明淡墨新
說與鄉人須着眼	丈夫出處係斯民

<康子韞의 등제 시권에. 伯珍의 시에 차운하여>

진흙 속 이무기 어느 날 밤 나루터로 가서
세 단계 龍門에 뜻을 폈네.
각고의 노력, 몇 번이나 계리를 따랐다.
명성 날리는 오늘 어머님을 위로하리
봄바람 비단 발두둑에 불 때 옥소리 먼데
새벽 햇살 금빛이라 담담한 묵빛 새로워라.
고향사람들이여 눈을 들어 보소.
丈夫가 나고 드는 것 이 백성에 달려 있다오.

이 시는 강백진의 급제 시권에 축하의 의미로 써 준 것이다. 강백진은 1477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간을 역임하기도 했다. 戊午士禍 때 정주로 귀양가서 烽燧의 夜役을 하였으며 갑자사화 때에 능지처참 된 인물이다.

조위는 이 시에서 강백진이 난관을 뚫고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으며, 어머니에게도 큰 위로가 됨을 적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다. 7구에서 조위는 고향 사람들에게 직접 고하는 화법을 택하여 시선을 유도한다. 그리고는 강백진이 관리의 길을 가거나 은거하는 판단의 기준은 다름 아닌 百姓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

16) 정경주, 앞의 책, p.37.

히 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는 官界에 처음 들어선 강백진에게 민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신진사류간의 유대의 바탕 위에서, 평소 공감하던 문제를 다시 뚜렷한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丈夫의 출처가 백성에게 달려 있다.”는 언급은 조위의 官人像의 또 다른 면과 연결된다. 신진사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위 시에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관리의 본분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선이다.

<江都懷古>

摩尼山色翠嶙峋	駐蹕孤城四十春
可使翠華留海嶠	傷心白骨委兵塵
春風麥秀升天闕	夜月煙橫甲申津
豈必權奸能獨健	當時肉食愧無人

<강화도에서 옛일을 생각하며>

마니산의 봉우리는 푸른데
외로운 성에 머문 지 40년
임금께서 바닷가에 머무신다 해도
상심한 백골들 전쟁터에 버려졌지.
봄바람에 보리 이삭 패는 승천궐
달 뜬 밤에 연기 날리는 갑곶진
어찌 권간만이 홀로 씩씩했었나.
당시에 제대로 된 벼슬아치 없었음이 부끄럽네.

강화도 유적지를 찾아 느낀 감회를 서술한 작품이다. 시인은 먼저, 몽골 침입기에 임금은 강화로 피신했지만 국토는 유린되고 백성들은 처참히 죽어가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어 역사의 흥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온 봄날 강화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조위가 말하고자 하는 매세지는 7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다. 당시 고려가 망한 것은 權奸의 농단과 그것을 견제할 수 없었던 관리들의 무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작 연대가 분명치 않으므로 어떤 시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훈구관료 집단이 비대해지면서 곳곳에 문제점이 노출되던 현실에 대한 우려의 일단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¹⁷⁾ 앞 장의 「花園」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논하면서 임금을 성군으로 이끌어야 할 신진사류의 책무감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이 작품은 조정의 특정 세력을 직접 의식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지향과 관련하여 그가 중심에 두는 官人像의 모습을 다음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送蔡耆之>

當時一鶚在朝端	自負平生鐵石肝
欲把丹心酬聖主	頻將危語犯天顏
居官待足何時足	未老得閑真是閑
匹馬明朝尋舊路	秋風歸興動鄉關

<채기지를 배웅하며>

당시 한 마리 수리가 조정의 윗자리에 있어
평생을 철석간담 자부했었지.
붉은 마음으로 성주께 보답하고자 하더니
자주 과격한 말로 임금님을 범하곤 했네.
관직에 있으면서 만족할 때 기다리면 어느 때나 만족할까.
늪지 않았을 때 한가함 얻으면 이 진정 한가함일세.
필마로 내일 아침 옛날 길 찾아가면
가을바람에 돌아가는 흥, 고향땅에 일렁이리.

이것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蔡壽를 전송하는 시이다. 전반부의 내용을 볼 때, 파직당한 이유는 과격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채수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하고 임금을 보필하기 위한 것이

17) 김창호, 앞의 논문, pp.288~289.

었지만, 충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은 타의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후반부는 일종의 위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상황에서의 위로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문맥상,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신진 관료의 입장에서, 그 所任을 다한 동료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해석 가능하다. ‘진정한 한가함’, ‘가을바람에 돌아가는 흥’ 등의 표현이 타의에 의해 쓸쓸히 돌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전송시의 분위기처럼 무겁게 읽혀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진사류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된 官人像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昭陵 復位와 前代 왕실의 정통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계속 논의되던 성종 조 조정¹⁸⁾의 분위기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IV. 맺음말 - 관인상의 시대적 의미

이상을 통해 조위 시에 나타난 15세기 후반의 官人像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시대적 의미를 덧붙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조위의 관인상 형성의 배경에는 두 축이 있다. 하나는 자형이자 스승인 김종직으로, 그는 조위에게 유가적 근본이념의 탐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기대했다. 또 하나는 당숙인 조석문으로, 조위를 경화 사회에 훈구가문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그가 이른 나이에 경화 문화적 체질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상대적인 성향의 두 사람을 통해 조위는 당대에 필요한 관인적 능력을 갖추어 가면서, 관인으로서의 지향 정립에 필요한 사고와 감각을 갖추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관인상’은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지향하는 이상적 지점이면서, 직접적으로는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규율하고

18) 정경주, 앞의 책, p.45.

실천의 방향을 정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위의 관인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태평 성세로 자부하는 당대에서의 ‘聖君을 보좌하는 盛世의 官人’의 상이다. 이는 시대에 대한 자신감 또는 낙관적 사고의 반영으로, 봄별같은 성세의 혜택을 입으면서 그러한 성세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진사류적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검속을 바탕으로 도의를 견지하는 관인’의 상이다. 이는 당시 신진사류가 추구했던 성리학의 실천적 경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진사류와의 연대 속에서 학문적·정치적 신념의 실천에 대한 기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민생을 우선시하고 時政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태도와 관계된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조위가 활동한 시기는 정치권력이나 학문권력의 면에서 훈구로부터 사림으로의 점차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김종직 진출 이후, 조위, 金宏弼, 金駟孫 등으로 이어질 무렵에 사화가 일어나고, 극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중국적으로는 16세기 후반 사림의 승리로 귀결된다. 조위는 김종직의 초기 제자로 신진사류의 일원이지만, 훈구관료인 당숙 조석문의 애호 아래 경화문화를 일찍 체험하고 체질의 일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두 관인상은 훈구로부터 사림으로 정치·학문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하던 15세기 중·후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時代精神의 점차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안온한 盛世의 혜택을 누리는 한편 그러한 성세의 지속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는 관인상의 면모와 날카로운 눈으로 時政을 주시하고 비판하는 관인상의 양립은, 바로 이러한 좌표점 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김종직, 『佔畢齋集』, 한국문집총간12, 한국고전번역원.
양희지, 『大峯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15, 한국고전번역원.
조위, 『매계집』, 한국문집총간16, 한국고전번역원.
- 김창호, 「조위 시를 통해 본 15세기 후반 문학 지형의 일면」,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교양, 2011.
이동재, 『매계 조위의 삶과 문학』, 보고서, 2004.
이동재, 『매계집』, 평사리, 2009.
이중범, 「점필재 김종직의 내면세계와 초기사림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교양, 2011.
정경주,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법인문화사, 1993.

Abstract

Images of the 15th Century's Bureaucrats in Jo Wi's Poems and Their Implications
/ Kim Chang H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images of the 15th century's bureaucrats in Jo Wi's poems, and what implications they have with changes of zeitgeist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re were two bases of the formation of Jo's images of bureaucrats. One is his brother-in-law and teacher, Kim Jong-jik, who woke up Jo about the importance of the exploration and practice of the radical ideologies of Confucianism, and expected him to open a new age on the basis of such an ideological orientation. The other is his uncle (his father's cousin) Jo Seok-mun, who got Jo Wi to recognize himself as a member of a Hungu family in capital society, and helped him to be equipped with capital-cultural features in his early days.

The 'images of bureaucrats' not only meant ideal points toward which officials who assisted the king and govern people should be oriented, but also directly refer to directions in which they disciplined themselves and established their practice on the ground of the evaluation of the times. Jo's images of bureaucrats can be summarized generally in two dimensions. In one dimension, they are 'officials assisting the lord in the reign of peace' in the days of King Seongjong, which the poet himself regarded as the reign of peace. This was a reflection of his confidence in the times or optimistic thoughts, and the officials in those images appeared to vow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in keeping the time of prosperity. In the other dimension related with neo-bureaucratic

* A professor in Wonkwang university / kch411@wonkwang.ac.kr

consciousness, they were ‘officials maintaining morality on the basis of self-regulation.’ In particular, they put priority on public welfare, and were willing to criticize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The parallelism between the two images of bureaucrats in Jo Wi's poems well reflect the aspects of the middle and late 15th century, in which politics, scholarship, and power began to move from Hungu to Sarim. This can be accounted for on the side of changes of zeitgeist.

【Key words】 images of bureaucrats, changes of zeitgeist, bureaucrats in a reign of peace, neo-bureaucrats, self-regulation, political criticism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